

제12권 7호

2022. 4. 4~2022. 4. 17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실버케어 시장의 확대와 보험사의 역할 |
| 이슈분석 |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하락의 영향과 시사점 |
| 금융경영브리프 | KeyBank, 헬스케어시장 특화 전략
美 디지털화폐 연구 착수, CBDC 경쟁 신호탄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매파 연준과 추경 우려 맞물리며 변동성 확대
외 환 : 러-우 협상 진퇴 반복 속 불확실성 경계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uyoung.shin)

논단

연구위원 정승희(smiley77)

이슈분석

연구위원 박상현(parksanghyun)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수석연구원 황성영(sungyoung.hwa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수석연구원 최제민(jeminchoi)

금융지표

연구원 김종현(jh.ki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실버케어 시장의 확대와 보험사의 역할
- 04 **이슈분석**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하락의 영향과 시사점
- 08 **금융경영브리프** KeyBank, 헬스케어시장 특화 전략
美 디지털화폐 연구 착수, CBDC 경쟁 신호탄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매파 연준과 추경 우려 맞물리며 변동성 확대
외 환 : 러-우 협상 진퇴 반복 속 불확실성 경계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실버케어 시장의 확대와 보험사의 역할*

정 승 희 연구위원(smiley77@hanafn.com)

고령화와 장수화로 국내 실버케어 시장은 매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의 성장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실버케어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영세사업자 위주의 시장 구조를 탈피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보험사가 실버케어 시장에 진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질서 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설립 관련 규제 완화 등과 더불어 민영간병보험 시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실버케어 시장의 확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이며 오는 2025년에는 이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과 3년 후에는 노인의 비중이 총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얘기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을 일컫는 후기고령자는 2021년 기준 약 354명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후기고령자부터 본격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 돌봄은 단지 오늘날만의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는 것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이들의 돌봄을 주로 담당해왔던 가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5세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매년 연장되고 있다. 반면에 요즘 가족은 대부분 2~3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나 노인들로만 구성된 부부가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가족이 노인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노인 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을 받는 고령자 수는 지난해 기준 86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5천여 개의 노인요양시설과 1만 8천여 개의 재가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며

2025년, 노인의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국내 실버케어 시장은 매년 빠른 속도로 확대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약 4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 실버케어 시장의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그 어떤 분야보다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 실버케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구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실버케어 시장의 질적인 성장은 미흡

반면 국내 실버케어 시장의 질적인 성장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 이루어진 보험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이용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요양보호사 태도의 문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족, 서비스의 양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보다 극단적으로는 요양시설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뉴스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질적인 개선 난항

이처럼 국내 실버케어 시장의 질적인 성장이 더딘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제공 주체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주체는 75.7%가 개인 사업자로 법인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이용자 3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의 기관이 60.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는 자본 부족으로 시설 투자가 힘들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 노인요양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2만 개에 이르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버 고객의 니즈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미흡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도 질적인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던 당시와는 달리 실버계층의 니즈는 변화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변화된 바가 없다. 특히 최근 고령인구에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차별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실버케어 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공적 개호보험이 도입된 초기에는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버케어 시장에 영세사업자가 난립하였고 대규모 부당 청구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인 이슈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가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보험사를 비롯하여 유통, 가전업체 등의 대기업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실버케어 시장의 경쟁은 기존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실버케어 시장도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국내 실버케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대기업의 진출이 미미한 상황으로 최근 보험사를 중심으로 실버케어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설립 기준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사는 민영 간병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실버케어와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손보재팬, 동경해상 등 보험사가 실버케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개호로봇, IoT 기술 등 디지털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실버케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의 실버케어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외에도 보험사의 본업인 보험 사업 측면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실버케어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민영 간병보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다양화하여 차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 간병보험과 연계하거나 간병보험 납부액에 대한 세제 혜택 부과, 간병보험과 연금 상품의 연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영 간병보험 시장이 커지면 보험사는 신규 수익 확보뿐만 아니라 본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버케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실버케어 시장 진출 확대는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은 물론 공사 역할 부담을 축진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문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본,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의 실버케어 시장 진출로 질적 수준이 제고

보험사의 실버케어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간병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하락의 영향과 시사점

박 상 현 연구위원(parksanghyun@hanafn.com)

금융, 의료, 안전 등과 같은 고위험 인공지능 적용 분야에서 모델 구축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모델 구축 초기 단계인 데이터 품질 관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저평가 받는 영역이다. 데이터 분야를 과소평가하는 관행으로 인해 모델의 오류가 누적되는 데이터 캐스케이드 현상은 인공지능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캐스케이드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사회적, 구조적, 기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 인공지능 분야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저평가로 데이터 캐스케이드 현상 발생

-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 공정성, 견고성, 안정성, 확장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
 - 인공지능 연구자와 개발자는 데이터 분야를 보상이 적고 비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며 인공지능 모델 및 알고리즘 구축 등과 비교해 단순 작업으로 간주
- 구글의 최근 연구에서 저평가된 데이터 품질 관리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캐스케이드가 인공지능 분야에 만연된 것으로 조사됨^[1]
 - 전문가, 실무자, 현장 파트너 간의 협업과 보상 문제,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물리적 환경 취약성 등의 요인으로 데이터 캐스케이드가 발생
- 데이터 품질을 과소평가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관행으로 유발된 데이터 캐스케이드는 예산 낭비, 손해 대상의 피해, 프로젝트 폐기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 인공지능 전문가의 92%는 1건 이상의 데이터 캐스케이드를 경험하였으며 45.3%는 2건 이상의 데이터 캐스케이드를 보고

■ 지표 부재와 관행의 답습이 데이터 캐스케이드 탐지를 위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지하고 측정하기 위한 사전 지표와 도구가 없는 경우 데이터 캐스케이드는 복잡해지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자원이 제약되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며 학제 간 협력이 수반되는 금융, 의료 분야 등의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존 관행을 답습할 경우 심화

[1] Everyone wants to do the model work, not the data work : Data Cascades in High-Stakes AI, Google, 2021

■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데이터 캐스케이드 발생

- 구글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가 없는 고위험 인공지능 적용 분야의 경우 취약한 환경적 요인으로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캐스케이드가 발생 (54.7%)
 - 데이터를 수집하는 현장의 예측하기 힘든 상황과 복잡성은 불량 데이터를 발생시키며 모델의 예측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모델 구축에 실패하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실무자 대상 데이터 관련 교육 투자, 일관된 데이터 모니터링, 재학습된 모델 기반의 비논리 영역 탐지 기법 등이 필요

■ 전문성 부족과 주관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데이터 캐스케이드는 자원 낭비 초래

-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수행하거나 전문가의 개입 없이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누적되는 경우 데이터 캐스케이드가 발생 (43.4%)
 - 현장 파트너와 시스템 운영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반복 작업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모되고 시스템의 성능 문제와 추가 컨설팅의 필요성이 발생
- 경험 기반의 주관적 의사 결정에 따른 오류 확대와 성급한 일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파트너와 실무자의 단계별 지속적인 피드백이 요구됨

■ 데이터 캐스케이드 유형별 발생 계기에 따른 영향과 징후

Cascade 유형	Cascade 발생 계기	Cascade로 인한 영향	Cascade 발생 징후
취약한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5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현실적인 훈련 데이터 • 잘못 수집된 실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에 대한 피해 • 모델의 완전한 실패 • 프로젝트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 시 시스템 성능 문제
해당 영역의 전문성 부족 (4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기반 기술 전문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 • 개념증명으로 성급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에 대한 피해 • 비용 소모 반복 작업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성능 문제 •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가 컨설팅 필요성 발생
적절한 보상 시스템의 부재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인센티브 기준 • 파트너간 데이터 활용 능력 부족 • 데이터를 비기술적인 분야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소모 반복 작업 초래 • 새 데이터 소스로 전환 • 프로젝트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성능 문제 •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
조직 내 데이터 문서화 오류/불량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문서의 가치 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셋 일부/전체 폐기 • 시간과 노력의 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연히 발견된 오류로 데이터 수작업 리뷰

자료 :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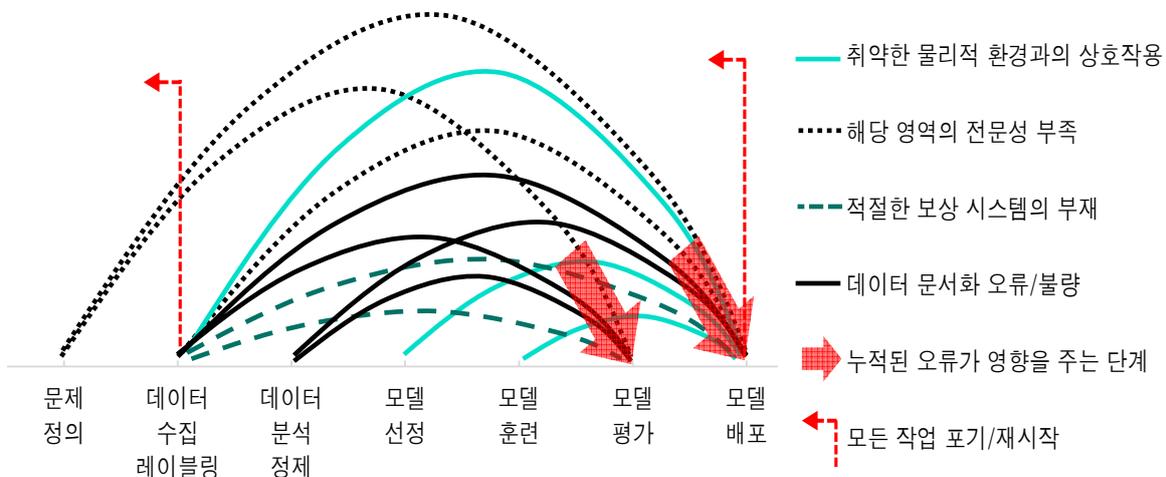
■ 비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조직간 데이터 문서화 기준 부재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

- 적절한 보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잘못된 인센티브 기준과 데이터를 비기술적인 분야로 취급하는 경우 (32.1%) 데이터 캐스케이드로 인한 추가 예산 낭비 발생
 - 따라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개선되는 사례를 제공하여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데이터의 맥락과 이용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조직 간의 표준화된 데이터 문서화 기준이 없는 경우 (20.8%) 데이터 폐기와 인력 낭비를 초래
 - 데이터 수집 계획, 데이터 전략 핸드북, 설계 문서, 파일 규칙, 현장 메모 등과 같은 단계별 문서 표준화 방법론의 도입을 통한 데이터 캐스케이드 진단 필요

■ 인공지능 모델 구축 후반부로 전파된 데이터 캐스케이드는 누적되어 악영향이 발생

-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수집 문제와 모델 훈련/평가 오류는 모델 배포 과정으로 전파되고 모델 실패와 성능 문제를 발생시킴
-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 정의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는 모델 평가와 배포과정으로 전파되어 반복 작업과 추가 컨설팅 비용을 초래
-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의 부재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캐스케이드를 발생시키며 모델 평가와 배포과정으로 각각 전파되어 프로젝트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 조직 내 데이터 문서화의 오류와 불량은 데이터 수집, 분석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후 모델 평가와 배포 단계로 전파되어 데이터 셋을 폐기하는 결과 초래

■ 데이터 캐스케이드 유형별 전파 양상



주 : 굵은 화살표는 Data Cascade 현상이 가시화 된 이후의 복합 효과이며 점선 화살표는 ML 프로세스의 포기 또는 재시작을 의미
 자료 :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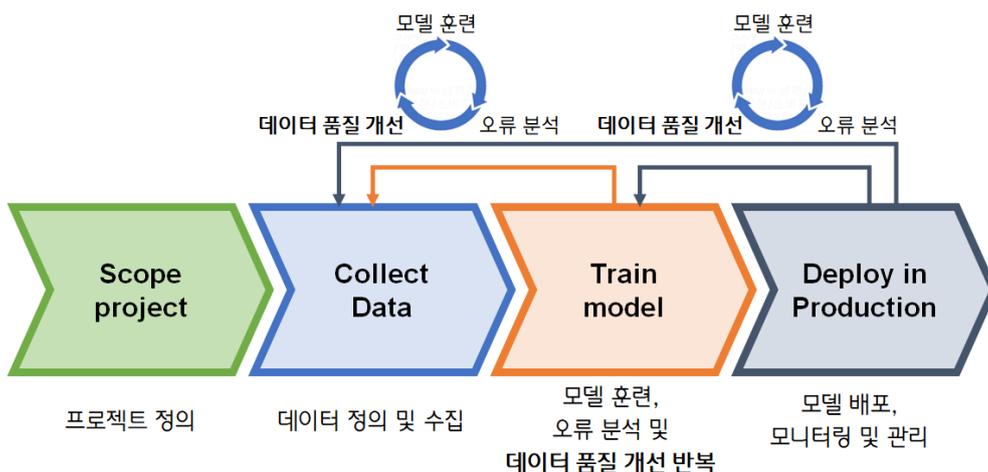
■ 데이터 우수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생태계의 사회적, 구조적, 기술적 측면 고려

- 인공지능 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데이터 자체의 타당성과 우수성에 관한 표준화된 지표와 방법론은 없음²⁾
 - 또한 대부분의 인공지능 교육은 모델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데이터 핸들링 기법 등에 대한 준비와 보상이 부족한 것이 현실
- 데이터 우수성 확보는 전문가와 실무자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으로 초기 단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 캐스케이드를 방지할 수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현상학적 타당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데이터의 가치와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미지 분류, 추천, 객체 인식, 언어 처리 등과 같은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걸쳐 데이터 모델의 훈련 비용은 낮아지고 훈련 시간도 감소하는 추세³⁾
 - 최근 인공지능 최고 권위자인 앤드류 응 교수는 엔비디아 개발자 학회에서 인공지능 모델이나 알고리즘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강조⁴⁾
- 따라서 반복적인 데이터 품질 개선으로 모델을 구축하는 데이터 중심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인공지능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반복적인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 성능 향상



자료 : GPU Technology Conference 2022, Nvidia

[2] The Three Sides of CrowdTruth. Human Computation, 2014

[3] AI Index Report 2022, Stanford University

[4] The Data-centric AI Movement, Andrew Ng, NVIDIA GTC 2022

KeyBank, 헬스케어시장 특화 전략

김지현 연구위원(jihyunkim@hanafn.com)

최근 美 소비자의 요구불계좌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대형은행에서 디지털은행으로 이동하며 “요구불계좌 보유 은행 = 주거은행”이라는 공식이 깨졌다. 네오뱅크와 핀테크 등 디지털은행은 전통은행이 부족한 서비스를 공략하며 자사 요구불계좌 마케팅에 성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美 지역은행 KeyBank는 헬스케어 시장을 타겟팅한 디지털 은행을 런칭하며 전국구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은행도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넘어 정밀한 고객세그먼트 마케팅으로 손님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美 소비자의 요구불계좌 이용행태가 전 세대에 걸쳐 대형 전통은행에서 디지털은행으로 이동 중^[1]

- 디지털은행의 요구불계좌 주거은행 이용 비중이 MZ뿐만 아니라 X세대도 약 3배로 증가하는 등 디지털은행의 요구불계좌 이용 비중이 전통은행을 상회
 - 디지털은행 요구불계좌 이용 비중('20.10월→'22.1월) : Z세대 11%→28%, Y세대 13%→31%, X세대 8%→22%, 베이비부머 4%→6%
 - 전통은행 요구불계좌 이용 비중('20.10월→'22.1월) : Z세대 35%→25%, Y세대 41%→23%, X세대 39%→22%, 베이비부머 31%→28%
- 다수 금융기관에서 목적별 복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금융소비행태가 증가하며, 주거은행의 정의가 요구불계좌 보유 은행이란 응답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
 - 요구불계좌 보유 은행과 주거은행 일치율 : 55세 이상 60%, Z세대 34%

■ 이는 디지털은행이 전통은행 대비 요구불계좌와 연계된 특화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단일 서비스로 시작한 핀테크와 네오뱅크는 점차 서비스를 확장하며 전통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all-in-one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전통은행이 부족한 영역을 공략
- 네오뱅크 차임(Chime)은 수수료없는 은행 거래와 신용 조회, 이자와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 제공 및 요구불계좌 가입시 은행이 급여를 2일 일찍 선지급해 자금관리를 지원
- 결제서비스 핀테크 CashApp은 비트코인과 주식 거래가 가능하며, 코인 송금, 주식과 코인의 거래내역 및 국세청 제출서류(Form 1099B)도 제공해 DIY 세금정산을 지원

[1]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Losing Primary Account Status to Digital Banks”, 2022.03.10., Financial Br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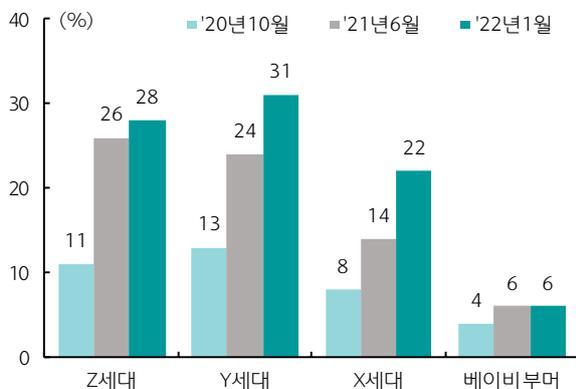
■ 美 일부 지역은행이 디지털은행과 대형은행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디지털 강화와 세부 고객세그먼트를 타깃팅한 전략을 통해 전국구 은행으로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

- 美 KeyBank는 '19년 핀테크사 Laurel Road를 인수해 기존 헬스케어 시장의 여신보유율이 60%인 점을 살려 헬스케어 시장에 특화된 디지털은행 Laurel Road for Doctor 브랜드를 런칭
- Laurel Road는 리테일 상품부터 병원 등 기관고객의 의료비 결제서비스까지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채널 장점을 이용해 영업지역을 전국구로 확대
 - KeyBank는 전미 자산규모 기준 24위의 오하이오 지역은행으로 북서부와 북동부 중심 16개 주에서 영업중이며, Laurel Road를 통해 50개주에 걸쳐 의료종사자 5만여명의 고객을 보유
- Laurel Road의 브랜드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엔지니어, 마케팅, 운영조직 등을 KeyBank와 별도로 운영
 - 고객상담서비스는 '프리미엄 케어 팀'을 구축해 콜센터와 챗팅을 365일 24시간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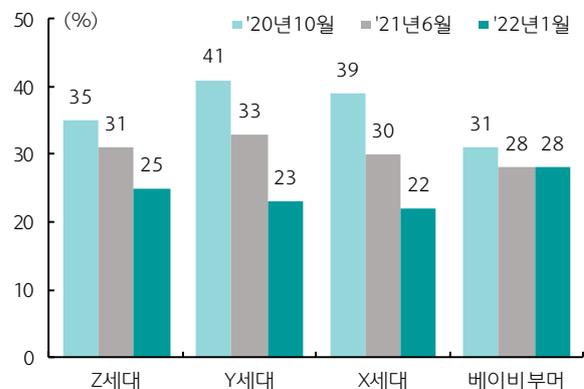
■ 국내 은행도 밀착된 세그먼트별 마케팅과 실효성 있는 금융 관여가 고객유치 전략에 반영될 필요

- 국내에서도 디지털은행 부각으로 전통은행들은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고객세그먼트에 한정되어 시도중
 - 청소년, 사회초년생, 액티브 시니어, 부유층 등 연령과 자산규모, 이용 채널에 따른 고객세그먼트 타깃팅으로 한정적이고, 특정 고객 세분화를 통한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은 부족
- 연령과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넘어 보다 세분화된 특정 고객세그먼트를 발굴하고 개인화된 금융니즈 충족 방안을 손님유치 전략에 반영할 필요
- 또한 특화 금융서비스와 고객군을 기 보유한 핀테크사와의 제휴 확대 및 인수도 비용효율적이며 동시에 은행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 검토 필요 

■ 디지털은행의 요구불계좌 이용 비중



■ 전통 대형은행의 요구불계좌 이용 비중



자료 : Financial Brand, Cornerstone Advisor

자료 : Financial Brand, Cornerstone Advisor

美 디지털화폐 연구 착수, CBDC 경쟁 신호탄

황성영 수석연구원(sungyoung.hwang@hanafn.com)

미국은 최대 기축통화국으로서 디지털화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으나,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행정명령으로 지시했다. 이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위안화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달러패권 수호와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기술적 리더십 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미중 두 강대국을 포함한 각국의 디지털화폐 개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동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 美 바이든 대통령, 3월9일 디지털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발표^[1]

- 백악관은 글로벌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 및 개도국에 비해 연구개발을 유보해왔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 착수를 지시
 - 디지털자산을 활용하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 금융활동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연구를 지시
 - CBDC의 채택에 따른 금융시스템과 국익에 대한 잠재적 영향 연구의 필요성 표명
- 최근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거래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한 통제력 제고를 통해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해야 함을 표명

■ CBDC에 대한 검토 및 테스트를 진행 중인 국가가 세계 100개국 이상

-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22.3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위안화를 위안화결제망 CIPS^[2]에 얹어 탈(脫)달러화를 계획 중
- 선진국 대비 금융인프라가 낙후된 신흥국들의 CBDC의 도입이 돋보이는 상황
 - 바하마('20.10월), 동카리브 국가기구(6개국 4속령, '21.3월), 나이지리아('21.10월) 등이 사용 중이며 인도·태국·캄보디아 등이 개발 중에 있음
- 유럽 내 미국 우방들도 디지털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부상과 탈달러 필요성 지적
 - 유럽중앙은행(ECB)도 '21.7월 디지털유로 프로젝트에 공식 착수했고, 스웨덴·영국·네덜란드·터키·노르웨이 등이 CBDC 기초연구 및 모의실험 단계

[1] "Biden takes big step toward government-backed digital currency", NBC NEWS, 2022.3.9

[2] 중국판 SWIFT로 불리는 위안화 기반 국제 결제망으로 세계 100여개국 1.2천개 은행이 가입 중

■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SWIFT 제외와 더불어 미국의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행렬의 가세로 세계 통화당국들의 CBDC 개발 및 활용 경쟁은 심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SWIFT³⁾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중국과 금융동맹을 돈독히 유지하며 CIPS 등 대체 결제망을 통한 디지털위안화 활용이 증가할 전망
 -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회로 위안화 입지를 제고하여 디지털화폐의 맹주를 자처하고 달러패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할 전망
-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서 드러난 달러화폐의 ‘무기화’로 세계 각국의 달러 통화 의존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통화폐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가상화폐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 필요성이 조명받고 있음
- 다만, CBDC 부상에 따른 중앙정부의 화폐 통제권 강화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와 달리 개인별 금융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개인정보 관련 저항이 우려

■ 국내외 디지털화폐 개발 및 활용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결제망의 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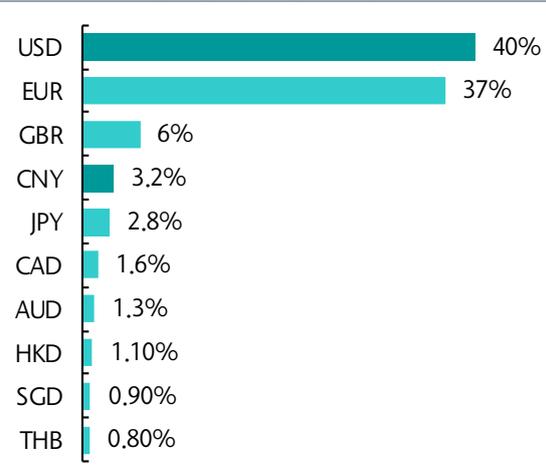
- 미·중 강대국간 상호 디커플링 체제 속에서 국제금융 결제망의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 국내 CBDC 개발은 아직 모의실험 단계이나 향후 디지털화폐 도입 시 발생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변화 등 금융시스템 충격에 대비할 필요 

■ 주요국 CBDC 추진 현황 (2022년 3월 기준)

	미국	바이든 대통령, CBDC 필요성 검토 지시
	중국	2022년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로 CBDC 시범 운영 확대
	유럽	CBDC 발행 필요성 검토하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진행
	스웨덴	CBDC 개발과 시험 프로젝트 추진
	영국	중앙은행 내 CBDC 전담 조직 두고 발행 가능성 검토
	한국	중앙은행이 모의실험 진행 중

자료 : 한국은행

■ SWIFT 내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 (2022년1월 기준)



자료 : Watch Powered by SWIFT BI

3)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 전세계 200개국 1.1만개 은행 가입 중인 달러 기반의 국제 결제망

금리: 매파 연준과 추경 우려 맞물리며 변동성 확대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연준의 강경 매파기조 전환 속 단기물 중심으로 급등했으며,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에 연동되는 가운데 추경 경계심까지 부각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美 장단기 금리차가 장중 역전되며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美 경기와 장기채 수급, 연준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인한 금리의 구조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경기침체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금리는 국채 수급 동향과 4월 금통위를 주시하며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조짐으로 급등

- 美 물가가 고공행진(2월 PCE 6.4% YoY, 40년래 최고치)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빅 스텝’ 언급으로 美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급등
 - 미국채 2/10년(%): 3.18일 1.94/2.15 → 25일 2.27/2.47 → 31일 2.33/2.34
- 반면 일본은행은 국채금리(10Y)를 0.25%로 고정시키기 위해 무제한 국채매입에 나서며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을 강화하는 등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지속
 - 다만 일본은행에 대한 시장의 정책 한계 인식으로 장기금리 하락폭은 제한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미중 갈등 가열 조짐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상승과 추경 경계심이 부각되며 단기물 중심으로 변동성 확대

- 국내금리는 러-우크라 협상 진전 및 부총리의 시장 안정화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인한 패닉성 매도와 추경, 국고채 입찰 부담 등으로 급등
 - 국고 3/5/10년(%): 3.18일 2.23/2.50/2.74 → 4.1일 오전 2.75/2.91/2.99
- 신정부의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가 35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및 적자국채 발행규모에 시장의 우려 확대
-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시장에서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시 한은과 공조 강화 등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고,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 조절 방침을 시사
- 한편 매파로 분류되던 이주열 총재의 임기 만료로 4월 금통위는 매파 성향이 약화되어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적극적인 시장개입도 어려워질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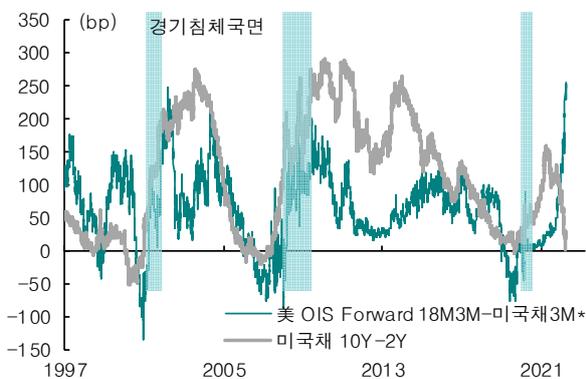
■ **美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경기침체 경고”와 “신중론” 사이 논쟁 가열**

- 연준의 강경한 긴축 스탠스로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 우려로 장기물 상승이 제한되며 장중 10Y-2Y 금리역전이 발생
- 통상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침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데, 최근의 물가 급등세와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
 - 실제 1980년 이후 6차례 경기침체에 앞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
- 다만 팬데믹 이후 연준의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인한 장단기 금리차 지표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美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점, 양호한 美 장기국채 수급 등을 고려할 때, 장단기 금리역전으로 경기침체를 속단하는 것은 시기상조
- 더욱이 연준은 “역전된 스프레드를 경기 침체에 대한 독립적인 척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기 구간 스프레드가 더 유의미하다고 지적
 - 연준은 2년 미만의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OIS Forward 18M3M-3M)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데 더 정확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현재 220bp로 역전 위험이 없다고 분석

■ **국내금리는 국채 수급 이슈와 신임 총재 정책성향을 주목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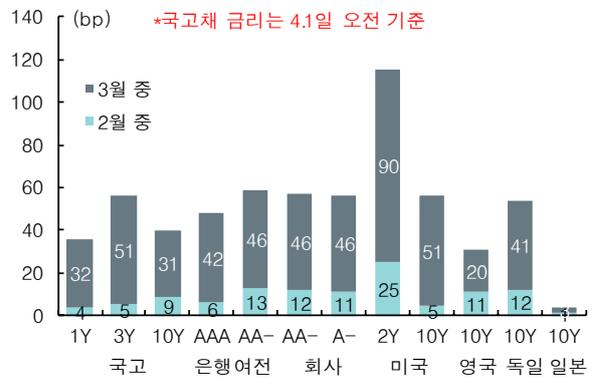
- 美 정부의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유가가 안정 조짐을 보이고, 美 장기국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추가 상승 속도는 점차 완만해질 전망
 - 美 장기국채 주요 매수자인 일본이 3월 회계연도 이후 대규모 롤오버 단행 예상
- 국내의 경우, 대외금리 상승부담 완화 기대에도 장기물 중심의 국채발행 확대 및 2차 추경 등 수급 이슈에 연동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연준 매파전환 후 첫 금통위를 앞두고 이창용 총재 내정자의 정책성향에 주목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65%~2.85%, 2.85%~3.10% 범위로 전망 

■ **미국 장단기금리차 및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



주: ‘18개월 후 3개월 내재 선도금리-3개월 국채금리’를 의미
자료 : Bloomberg

■ **주요 채권 금리 등락폭**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외환: 러-우 협상 진퇴 반복 속 불확실성 경계

최 제 민 수석연구원(jeminchoi@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협상이 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경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 확대 속 높은 수준의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엔화는 최근 미일간 통화정책 디커플링과 일본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가파른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통화로서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원/달러 환율] 러-우 사태 협상 기대와 실망 반복되는 가운데 혼조세

- 원/달러 환율은 당초 유가 변동성 확대,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러-우 협상 기대 진전 등으로 반락
 - 5차 협상에서 러가 군사작전 축소를 발표하면서 환율은 1,210원을 일시 하회
-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군사작전 재개로 협상 기대가 약화되고 3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환율이 재차 상승하여 지난 2주간 환율은 혼조세를 나타냄
 - 3월 무역적자는 1억4천만달러 기록(수출입은 각각 YoY +18.2%, +27.9%)

■ [국제 환율] 달러화는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 견조한 흐름

- 달러화지수는 러-우 사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보였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강세 흐름 지속
- 유로화는 러-우 협상 평화협정 기대와 EU 내 인플레 심화에 따른 ECB의 통화정책 선회 기대 등으로 강세 시현하였으나 협상 결렬, 경제 둔화 우려로 강세 일단락
 - 유로존 내 물가상승과 경제 둔화 우려 부각되면서 유로화 취약성 재차 부각
- 엔화는 BOJ 개입 우려,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해외자금 유입, 급격한 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 등으로 낙폭을 축소
- 한편, 러시아의 루블화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가파른 강세를 보이며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
 -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직전(2.22일) 달러-루블화 환율은 78.8루블, 현재는 81.7루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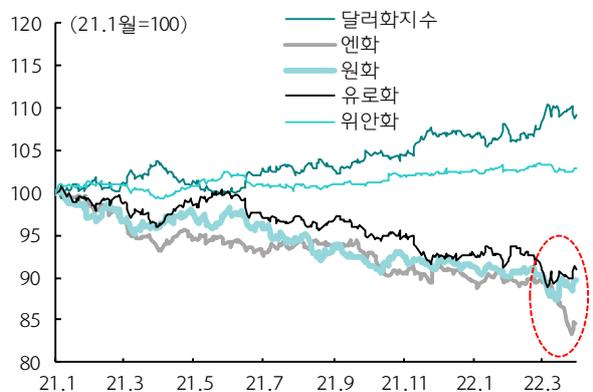
■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엔저 지속시 부정적 파급효과 유의

- 최근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인한 위험회피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가 가파른 약세를 보이면서 엔저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올해 초 대비 달러-엔 환율은 7.4%(3.28일) 상승(원/달러 환율은 3.0% 상승)
- 이러한 엔저 현상은 1) 연준과 BOJ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한 미-일간 내외금리차 확대, 2) 작년 12월부터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
- BOJ는 가파른 엔저 심화를 경계하고 있으나 당분간 통화정책 디커플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초적인 엔화 약세 흐름은 이어질 전망
 - BOJ는 엔화 약세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엔화 약세 악순환, 소비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에도 주목
- 엔저의 단기적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나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수출 산업 중심으로 피해 확대 우려
 - 다만, 과거와는 달리 국내 수출 산업이 하이테크놀러지, ICT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경쟁력이 높아져 엔저 심화에 따른 충격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

■ 러-우 협상 주시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경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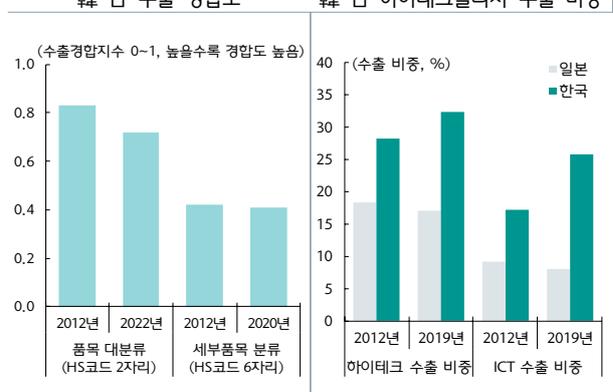
- 협상 기대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도 상승, 푸틴 참모들의 거짓 보고 등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 美 통화긴축과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통화정책·경기 향방의 불확실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 이어지며 환율 변동성 지속될 전망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1,195원~1,23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 추이



주: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강세, 낮으면 약세를 뜻함
자료 : Bloomberg

■ 한국과 일본 수출 경합도와 하이테크놀러지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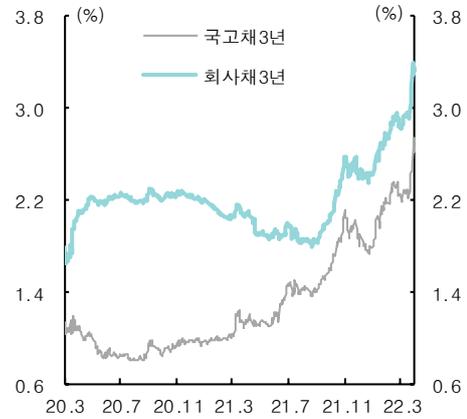


주: 세부품목 분류는 HS 코드 6자리 기준 수출 상위 500대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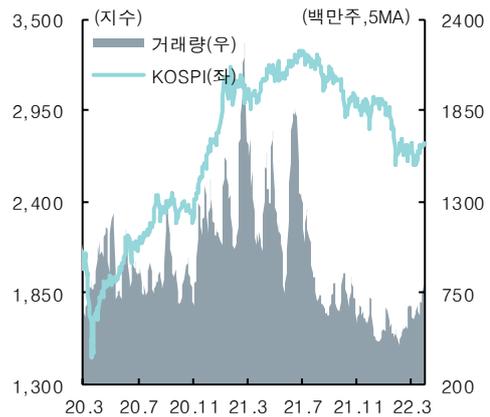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2.21	0.98	1.36	1.48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월말	1.39	1.50	1.88	2.86	2.24	2.47
3월25일	1.25	1.51	1.97	3.16	2.51	2.71
3월28일	1.20	1.51	2.10	3.39	2.75	2.97
3월29일	1.22	1.51	2.10	3.36	2.70	2.89
3월30일	1.23	1.51	2.09	3.29	2.62	2.80
3월31일	1.45	1.51	2.11	3.34	2.66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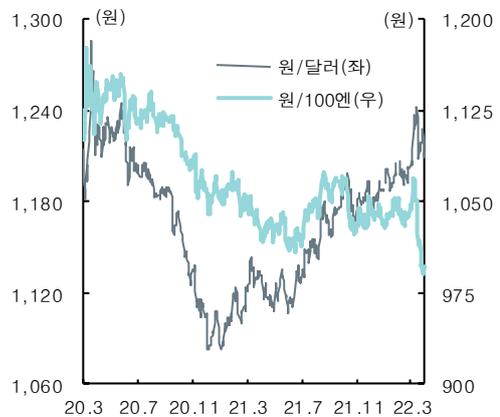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월말	2,699.2	128,942	613	965
3월25일	2,730.0	108,250	603	-5,549
3월28일	2,729.6	98,017	768	-2,643
3월29일	2,741.1	100,203	732	-2,832
3월30일	2,746.7	110,995	840	-93
3월31일	2,757.7	97,294	1,030	-1,739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월말	1,202.3	1,045.9	190.6	1,347.8
3월25일	1,218.8	998.6	191.4	1,338.3
3월28일	1,227.3	990.5	192.6	1,348.0
3월29일	1,219.3	992.6	191.8	1,352.2
3월30일	1,209.6	992.5	190.5	1,349.7
3월31일	1,212.1	996.0	191.2	1,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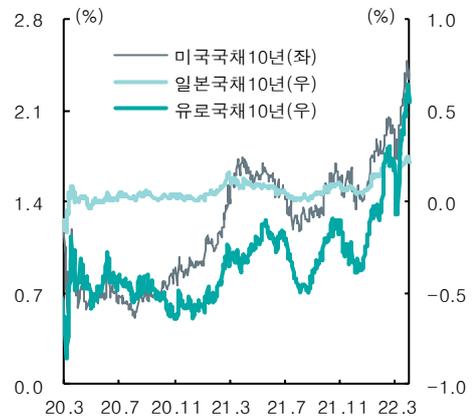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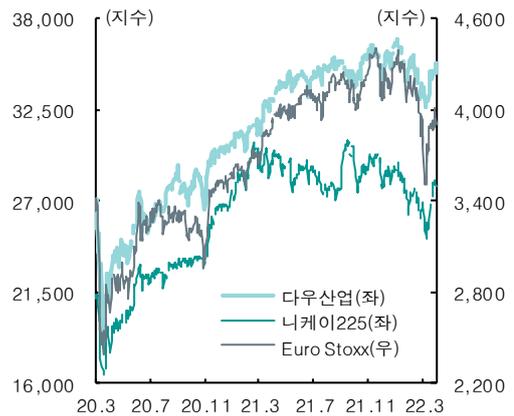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2월말	0.07	0.50	1.43	1.83	0.19	0.14
3월25일	0.32	0.98	2.27	2.47	0.24	0.59
3월28일	0.32	1.00	2.33	2.46	0.25	0.58
3월29일	0.32	1.01	2.36	2.39	0.25	0.63
3월30일	0.32	0.97	2.31	2.35	0.23	0.65
3월31일	0.32	0.96	2.33	2.34	0.22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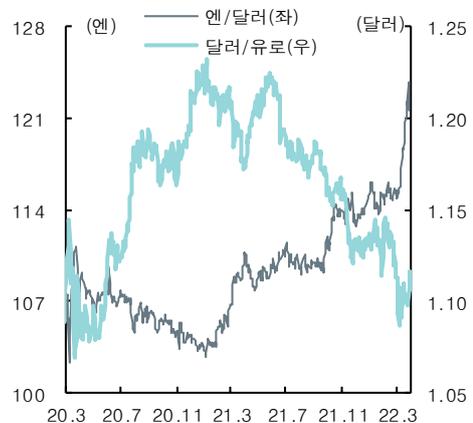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2월말	33,892.6	26,526.8	3,462.3	3,924.2
3월25일	34,861.2	28,149.8	3,212.2	3,867.7
3월28일	34,955.9	27,943.9	3,214.5	3,887.1
3월29일	35,294.2	28,252.4	3,203.9	4,002.2
3월30일	35,228.8	28,027.3	3,266.6	3,959.1
3월31일	34,678.4	27,821.4	3,252.2	3,902.5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월말	114.95	1.121	96.9	1,900.7
3월25일	122.05	1.098	111.9	1,954.2
3월28일	123.81	1.098	110.7	1,939.8
3월29일	122.85	1.109	108.6	1,912.2
3월30일	121.84	1.116	108.4	1,939.0
3월31일	121.67	1.106	107.7	1,954.0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7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4월 1일 인쇄

2022년 4월 4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7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